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1일(한국시간) 열린 수영 남자 계영 8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19번째 올림픽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을 작성한 펠프스가 금메달을 입에 맞추며 기뻐하고 있다.

런던(영국) | 로이터연합뉴스

‘황제’ 펠프스 개인통산 19번째 메달…올림픽 최다메달 신기록

선천성 장애 극복하러 수영 시작
아테네 올림픽서부터 메달 수집
베이징올림픽선 ‘8관왕 신화’로
스캔들 딛고 우뚝 “진정한 황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7·미국)가 올림픽 역사를 새로 썼다.

펠프스는 1일(한국시간) 런던 올림픽파크 아쿠아티컬센터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미국대표팀의 마지막 영자로 나서 우승을 합작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 통산 19번째 올림픽 메달이다.

● 장애아동에서 수영 황제로

펠프스는 1985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경찰관인 아버지와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증후군(ADHD)’이라는 선천성 장애를 앓았다. 설상가상 7세 때는 부모가 이혼했다. 수영을 배우게 된 건 이때다. 처음에는 ADHD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수영장을 찾았다. 취미로 수영을 하던 그는 11세 때 노스 볼티모어 아쿠아틱 클럽에서 밤 보우먼 코치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수영선수의 길로 들어섰다. 바우먼 코치는 지금까지 펠프스의 곁에서 그를 지도하고 있다. 그는 일취월장했다. 3년 뒤 미국대표 B팀(2진)에 들어갔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 대표선발전 점영 200m에서 출전권을 따내며 이름을 알렸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도 빼놓을 수 없다. 어머니는 엄격하게 교육했다. 그 덕분에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엄청난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자신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 수영 역사 새로 쓴 펠프스 신화

펠프스의 올림픽 역사는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쓴 맛을 본 뒤 아테네 대회부터 수영 황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6개의 금메달과 2개의 동메달을 수확하면서 메달 수집에 박차를 가했다. 아테네 대회가 끝난 뒤 더 강해졌다. 그는 무려 11차례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베이징 대회를 앞두고 열린 멜버른 세계선수권에서 세계 기록 5개와 함께 7관왕에 오르면서 ‘펠프스 신화’를 예고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무려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번의 올림픽에서 16개의 메달을 수

연도	장소	종목
2004	아테네	남자 접영 100m, 200m 금
		남자 개인혼영 200m, 400m 금
		남자 혼영 400m 금
		남자 계영 800m 금
		남자 계영 400m 동
		남자 자유형 200m 동
2008	베이징	남자 개인혼영 400m 금
		남자 자유형 200m 금
		남자 접영 100m 금
		남자 접영 200m 금
		남자 혼계영 400m 금
		남자 개인혼영 200m 금
2012	런던	남자 계영 400m 금
		남자 계영 800m 금
		남자 계영 400m 은
		남자 접영 200m 은
2012	런던	남자 계영 800m 은
		남자 계영 800m 은

※금 15, 은 2, 동 2

확한 펠프스는 런던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하면서 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새 기록을 썼다. 옛 소련의 전설적인 체조 선수였던 라리사 라티나나가 세운 올림픽 최다 메달 18개(금 9, 은5, 동4)를 뛰어 넘었다.

● 수영 황제의 감추고 싶은 비밀

2009년 12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가 성 추문 사건으로 언론의 못매를 맞고 있을 당시 펠프스는 우즈를 감싸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누가 당신을 응원하는지도 알게 된다. 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으며 그것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됐다”며 두둔했다.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펠프스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아테네 올림픽이 끝난 직후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돼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때 나이 19세. 2009년 2월에는 영국 주간지에 ‘펠프스가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사진이 게재되면서 곤욕을 치렀고, 결국 미국수영연맹으로부터 3개월간 국내외 대회 출전 금지의 징계를 당했다.

각종 스캔들에도 연루됐다. 미스 캘리포니아 출신인 니콜 존스, 영국의 톱 모델로 활동했던 릴리 도널슨과 열애설에 휘말렸고, 2008년 8월에는 수영선수 프테파니 아이스와 이만다 비어드와의 열애설이 연이어 터졌다. 또 11월에는 미국 연예전문지 피플이 26세의 웨이트리스와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2009년에는 미스USA 2위에 오른 캐리 프리진과 열애 소문이 번졌다. 온갖 소문에도 불구하고 펠프스는 런던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수립하며 수영 황제의 명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주영모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미국 체조 스타 가브리엘 더글라스가 1일(한국시간) 영국 노스그리니치 아레나에서 열린 기계체조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균형 잡힌 멋진 연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런던(영국) | AP연합뉴스

흑빛 ‘날다람쥐’ 더글라스, 백인 천하 매트워서 날다

(150cm의 작은 체형서 나온 별명)

도마 등 4종목 활약…美우승 견인 스타덤
내일 아프리카계 선수론 개인 첫 금 도전

‘날다람쥐’ 가브리엘 더글라스(17)가 런던 올림픽에서 ‘체조 스타’로 떠올랐다.

더글라스는 1일(한국시간) 런던 노스그리니치 아레나에서 열린 기계체조 여자단체전 결승에서도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 등 4개 종목에서 크게 활약하며 미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미국은 183.596점을 획득하며 2위 러시아(178.530)를 제치고 16년 만에 여

자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더글라스는 체조계에서 이단아로 꼽힌다. 러시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강세인 체조 종목에서 ‘흑인’으로서 강력한 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다. 흑인 특유의 탄력과 우아한 동작으로 경기장을 찾은 체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별명은 ‘날다람쥐’다. 150cm의 작은 체형에서 나오는 균형 잡힌 동작이 다람쥐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더글라스는 8세 때부터 버지니아 주 챔피언에 등극하는 등 유망주로 꼽혔다. 시니어 데뷔 1년 만에 올림픽 최고

의 스타로 성장했다. 작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처음 출전해 미국의 여자단체전 우승을 이끌었다.

더글라스는 3일 열리는 기계체조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지난 달 30일 열린 예선에서 60.265로 3위에 올랐다. 빅토리아 코모바(러시아·60.632)와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글라스가 개인 종합 또는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다면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체조 선수가 된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佛테니스 선수 총가, 올림픽 최다게임

프랑스 테니스 대표선수 조 윌프리드 총가(세계랭킹 6위)가 역대 올림픽 테니스 사상 가장 많은 게임을 치르고 런던올림픽 테니스 3회전에 진출했다. 총가와 라오니치는 1일(한국시간) 열린 경기에서 3시간57분간 무려 66게임을 주고받아 3세트제로 치러진 올림픽 테니스 경기 중 최다 게임 신기록을 세웠다. 총가는 “어릴 때부터 올림픽 무대를 꿈꿔왔는데 뭔가 엉뚱한 쪽으로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된 역사를 쓰겠다”며 메달 획득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타이슨에 귀 물어뜯겼던 홀리필드 수도

1997년 마이크 타이슨과 경기에서 귀를 물어뜯기는 수모를 당했던 미국 권투선수 예반터 홀리필드(50)가 런던올림픽에서 평범한 관광객으로 취급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영국 더 선은 7월31일(한국시간) 미국 방송국 NBC가 올림픽 방송과 관련한 인터뷰를 취재 중 홀리필드를 현지 관광객으로 착각해 인터뷰를 하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1일 보도했다. 1984년 LA올림픽 라이트 헤비급 동메달리스트인 홀리필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내 이름이 앞뒤로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녀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엘리자베스2세 외손녀, 승마 단체전 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외손녀 자라 필립스가 1일(한국시간) 승마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땀다. 필립스가 속한 영국은 총 벌점 138.20점으로 독일(133.70점)에 이어 2위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정작 필립스는 영국의 금메달 획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런던올림픽 기록실

(1일 22시 20분 현재)

●**양궁** ●남자 개인전 32강=김범민(한국) 6-2 라이(인도), 오진혁(한국) 6-4 알바레스(멕시코) ●남자 개인전 64강=김범민(한국) 6-4 엘더(피지), 오진혁(한국) 6-0 몰러(스위스)

●**배드민턴** ●남자 단식 16강=이현일(한국) 2-0 요르겐센(덴마크) ●남자 복식 예선전 D조=정재성, 이용대(한국, 3승) 2-0 키엔키토쿠, 분항탄(말레이시아, 2승1패) ●여자 복식 예선전 A조=정경은, 김하나(한국, 3승) 2-0 왕사오리, 유양(중국, 2승1패) ●여자 복식 예선전 C조=하정은, 김민정(한국, 3승) 2-1 플리, 자우하리(인도네시아, 2승1패)

●**펜싱** ●플러레 남자부 개인전 동메달결정전=최병철(한국, 동메달) 15-14 발디니(이탈리아) ●플러레 남자부 개인전 준결승전=아부엘카셀(이집트) 15-12 최병철(한국) ●플러레 남자부 개인전 8강=최병철(한국) 15-13 마첸페이(중국) ●에페 남자부 개인전 8강=정진선(한국) 15-11 퍼틀러(독일) ●에페 남자부 개인전 16강=정진선(한국) 15-8 알릴자노프(카자흐스탄) ●에페 남자부 개인전 32강=정진선(한국) 15-11 수크호프(러시아), 쿠다예프(우즈베키스탄) 15-9 박경두(한국) ●사브 여자부 개인전 32강=김지연(한국) 15-3 곤잘레스(멕시코)

●**핸드볼** ●여자부 B조=한국(2승1무) 27-27 노르웨이(1승1무1패)

●**하키** ●여자부 A조=영국(2승) 5-3 한국(2패)

●**유도** ●-81kg급 남자부 결승전=김재범(한국, 금메달) 유효 2개 비소프(독일) ●-90kg급 남자부 8강=송대남(한국) 절반-유효 승 마사시(일본) ●-90kg급 남자부 16강=송대남(한국) 절반-유효 승 마마도프(아제르바이잔) ●-90kg급 남자부 32강=송대남(한국) 한판승 로메로(우루과이) ●-70kg급 여자부 8강=황예슬(한국) 한판승 스라카(슬로베니아)(연장) ●-70kg급 여자부 16강=황예슬(한국) 유효 우세스 로브라(스위스) ●-70kg급 여자부 32강=황예슬(한국) 절반승 바비에리(이탈리아)

●**조정** ●싱글스컬 남자부 준결승전 C조=① 베키치(크로아티아), ② 상(인도), ③ 레이몬드(모나코), ④ 김동용(한국, 7분48초 09, 결승전D 진출)

●**요트** ●레이저급 남자부 4경주=① 콘티네스(키프로스), ② 구디슨(영국), ③ 그로벨루센(독일), ④ 하지민(한국) ●RS:X급 남자부 2경주=① 반라젤버그(네덜란드), ② 미아린스키(폴란드), ③ 빌헬름(독일), ④ 이태훈(한국) ●RS:X급 남자부 3경주=① 반라젤버그(네덜란드), ② 본렘스프랑스), ③ 토빈(호주), (21) 이태훈(한국) ●RS:X급 남자부 4경주=① 뎀스(영국), ② 코발리나스(그리스), ③ 반라젤버그(네덜란드), (17) 이태훈(한국)

●**수영** ●200m 평영 여자부 준결승전 1조=① 리우원(중국), ② 나츠미(일본), ③ 아담스(미국), ④ 최혜라(한국, 2분08초32) ●200m 배영 남자부 예선전 2조=① 발록(헝가리), ② 올리베이라(포르투갈), ③ 머레이(남아공), ④ 박형주(한국, 2분01초50) ●200m 개인혼영 남자부 예선전 1조=① 정원용(한국, 2분03초 33, 예선 탈락), ② 셀베레프(우크라이나), ③ 케틴(대륙) ●200m 평영 여자부 예선전 3조=① 스즈키(일본), ② 백수연(한국, 2분25초76, 준결승 진출), ③ 리명(중국) ●200m 평영 여자부 예선전 4조=① 호스트먼(스웨덴), ② 와타나베(일본), ③ 맥케이브(캐나다), ④ 정다혜(한국, 2분26초83, 준결승 진출)

●**역도** ●-69kg급 남자부 A조=① 린친명(중국), ② 트리아트노(인도네시아), ③ 마르틴(루마니아), ④ 원정식(한국, 322kg(144+178))

‘죽음의 다카르렐리’ 챔피언 사격 등

알 아타야, 4전5기 도전끝에 메달 영광



‘죽음의 릴리’라 불리는 다카르렐리 자동차 경주대회 챔피언인 알 아타야(42·카타르·사진)가 2012런던올림픽 사격에서 동메달을 땀다.

알 아타야는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왕립 포병대 기지 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남자 스키트 경기에서 본선 및 결선 함께 144(121+23)점을 기록해 빈센트 헨콕(미국·148점)과 안데르스 콜딩(덴마크·146점)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결선을 마칠 때까지 4위 발레리 쇼민(러시아)과 똑같이 144점을 기록했으나 슛오프(승부를 가르기 위한 추가 사격)에서 6-5로 이겨 카타르에 최초의 올림픽 사격 메달이자 이번 대회 첫 메달을 안겼다. 1996애틀랜타올림픽에 첫 출전한 이래 5번의 올림픽 도전 끝에 거둔 영광이다.

알 아타야는 자동차 경주 선수로 더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넘나들며 15일간 총 9618km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에서 폭스바겐 투아렉을 타고 출전해 2위를 49분차로 따돌리고 아랍권 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챔피언에 올랐다. 1979년부터 시작된 다카르렐리는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 계곡, 산길, 밀림 등을 15일 이상 달리는 마라톤렐리다.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지금까지 대회 도중 40여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위험한 극한의 레이스 스포츠다.

알 아타야는 올해 다카르렐리에도 참가해 2연패를 노렸지만 대회 도중 기권했다. 런던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마지막 국제대회인 아시아선수권이 같은 시기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대회 9일째에 기권을 선언한 알 아타야는 곧바로 남미에서 도하로 이동해 아시아선수권에 참가, 세계 타이거기록인 150점 만점을 쏘며 출전권을 따냈다.

원성원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 올림픽 말말말

- “이번 올림픽 진짜 맘에 안 드네. 이게 무슨 올림픽이야? 한국 ‘놀림’이지.” (트위터 @chyus***)
- “중중 메달 못 따서 죄송하다고 인터뷰하는 선수가 있다. 전혀 죄송할 거 없다. 비인기종목 선수로 피와 땀을 흘리며 4년을 노력해 왔는데 죄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올림픽이 끝나면 또다시 썰렁한 경기장으로 돌아가야 할 그대에게 죄송하다.” (트위터 @lujve***)
- “말로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 무엇보다도 감을 수 없는 고마운 마음들로 이겨내고 있다. 감사해요 정말, 정말.” (신아람 미니홈피)
- (종목 가리지 않고) 중국 여자 선수들이 ‘건아’들로 보인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영국 데일리메일 기자 댓글)